종단소식

조계종

경봉선사 16주기 다례

양산 통도사(주지 월파) 극락암은 21일 '경봉대선사 입적 16주기 다례제'를 봉행한다. 또 극락암은 이날 경봉스님이 정진했던 토굴인 삼소굴 중수불사 회향법회도 봉행한다.

용주사 보살계 · 예수재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7월2일 대웅전에서 보살계 및 예수재를 봉행한다.

정무스님(영월암 주지)이 증명법사로 참여하는 이번 법회에는 각 말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태고종

인천 일광정사 기공식

일광정사(원장 정태진)는 5월31일 인천시 서구 대곡동 산 121-3번지 일광동산 건설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졌다.〈사진〉

태고총림법 제정 논의

제75회 임시 중앙종회가 16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린다.

이번 종회에서는 태고총림법 제정안, 종회의장 선출안, 종헌종법 개정안, 1997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순국선열 영가 천도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일 선암사를 비롯한 2천5백여 전국 사암에서 순국선열 영가 천도재가 일제히 봉행됐다.

'국난극복과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1천일 기도'의 일환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는 호국영령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

9회 남부지역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가 7일 경남 양산전문대학교에서 열렸다.

1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이날 체육대회는 줄다리기, 우승기쟁탈 사찰별 계주, 파도천타기 등의 경기로 진행됐다.

문경 옥천사 기공식

문경지역 포교와 신도들의 수행도량이 될 옥천사(주지 동문) 기공식이 5월 30일 가은읍 작천리 부지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운덕스님, 김룡사 주지 자광스님을 비롯 김학문 문경시장,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김대영 시의회 의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옥천사는 99년말 완공 예정이다.

진각종

14일 창교절 기념행사

통리원(통리원장 성초)은 14일 창교절을 맞아 기념불사를 봉행한다.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진각종은 이날 각 심인당 별로 자성일 불사와 겸해 기념행사를 가진다.

쌍용화재 진각 대리점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20일 쌍용화재 진각대리점을 개설한다. 진각대리점은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을 취급하며, 보험 가입액의 7.5%를 복지법인 복지사업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02)942-0144

관음종

관음사서 전국주지회의

총무원(총무원장 홍파)은 10일 논산 관음사에서 전국 주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10일 대전 EXPO에서 개최할 '국난극복을 위한 영산대법회'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타종

이웃돕기 거리탁발

총무원(총무원장 권성우)은 종정사서실 주관으로 1일부터 8월30일까지 두달동안 청량리역 광장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거리탁발을 실시한다.

권성우 총무원장은 "거리탁발을 통해 모아지는 성금은 캄보디아 불교학교 및 문화원 건립비 환차손 충당과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질 것이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이웃 아픔나누며 여생회향"

보문선원 무료급식소 운영 장대비화 보살

아들은 스님 어머니는 후원자
'실직자 쉼터'도 지원
월 5천원 정기회원 모집

"속가의 모자지간이 아니라 승려와 재가로써 만나 항상 성광스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정당의 여성위원회 활동도 하고, 불자가수회 신도회 활동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놓아 버리라는 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삶을 회향할 생각입니다"

속가의 아들을 출가시키고, 이제는 출가 수행자가 된 아들의 든든한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장대비화보살(58세).

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보문선원, 맑고향기롭게의 실직자 쉼터 겸 무료급식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재개원 현장에서 대비화보살은 자원봉사자들과 점심준비에 부산했다.

그동안 성북동 길상사에서 운영해 온 쉼터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재기능을 다해내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중 길상사 청년회 지도법사이자 보문선원 주지인 성광스님이 실직자를 위한 쉼터와 무료급식소를 보문선원에서 함께 열어보자며 제안해 일이 성사됐다. 그리고 7년전부터 이미 보라매공원 노인무료급식소, 오산 공군부대 등지에 이름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던 스님의 속가 어머니 대비화보살이 재정후원과 자원봉사자 조달을 맡았다. 올해 초 개원한 89평 규모의 보문선원은 종로5가에서 '일광주단'이라는 포목점을 운영하는 대비화보살이 직접 마련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뜻맞는 불자 3백여명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이곳 무료급식소도 그런 불자들이 5명씩 팀을 짜서 돌아가며 무료급식봉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비화보살은 "쌀은 스님께서 사찰을 다니면서 모아주기로 했고, 부식비는 맑고향기롭게 후원회원들과 제가 힘닿는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밝혔다. 대비화보살은 점차 무료급식자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월 5천원의 정기후원 회원을 모집한다며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02)741-4696

◇대비화 보살(원내)이 만든 동대문구 제기 2동의 보문선원. 이곳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쉼터와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이은자 기자

박물관 위탁운영 반대 '확산'

역사 · 민속학회 등 16개단체 철회요구 성명

정부가 국립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문화계와 학계의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박물관협회(회장 허동화)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박물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려는 발상은 국가경제 파탄위기를 시장경제논리로만 접근해 민족의 정서와 얼, 혼을 짓밟으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적위주의 외관적 처방보다 박물관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치료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학회 등 역사학관련 10개학술단체도 같은날 역사학대회를 마치면서 "정부는 왜 경제난국을 굉계삼아 애꿎은 문화유산에 화풀이 하는가"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은 비민주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공청회 등 공개토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민속학회 등 민속학관련 6개 단체들도 1일 성명을 발표, "민속박물관 등의 민간위탁은 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먹거리와 기념품 판매 등 수익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박물관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호국영령 천도법회
은평 · 광주사암련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불교사암연합회와 전남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10일과 19일 각각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은평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운·삼천사 주지)는 10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제10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암연합회회원 주지스님을 비롯 각 사찰 신도대표 및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은평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할 계획이다.

은평불교사암연합회는 매년 법회시 모범 공무원 자녀를 선정, 5백여만원의 장학금을 구청에 전달해 오고 있다. 또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 원효사 주지)는 19일 구례 천은사에서 '호국영령 전몰군경 천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사암련 산하 40여 사찰이 동참하는 위령재, 조류(굉)방생, 3寺 순례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진각종 구조조정필요" 62%

교직자 '종단발전방향' 설문

기획위 설치 · 복지불사 제안

진각종 교직자들은 종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종단발전기획위원회 설치, 교구청 및 심인당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덕대 군승문제에 대한 종단의 확고한 입장이 표명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진각종은 4월 21~22일 춘기스승강공에 참석한 1백77명의 전수정사를 대상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 종단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승들은 종단의 구조조정에 대해 6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고, 중장기 종단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종단발전기획위원회 설치(85%)를 적극 지지했다.

또 교구청 및 심인당 자체예산 편성에 대해 80%의 교직자들은 각 심인당이 자체예산을 확보해 교화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스승복지(35%) 장묘사업(26%) 등의 복지불사와 스승법복 및 법의 디자인 변경(96%)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또한 조계종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덕대학교 군승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교직자 78%가 종단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tn 이사증원 · 6차 주식공모

천태 · 총지종등 범종단 프로그램 협찬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7월부터 제6차 주식공모를 실시하고 범종단적으로 새 이사를 영입키로 했다.

불교TV는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21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7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2개월동안 주식을 공모하고 범종단적으로 새 이사를 추천 영입할 것을 결정했다. 27명의 이사중 17명(위임3명 포함)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정우스님은 "불교TV는 현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수의 판매사업과 경기도 시흥 영각사 납골당 분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태종과 총지종 등 범종단적으로 프로그램 협찬 제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후원회 전국조직 확대

종단협 참여 '경영안정 모색'

불교방송 후원회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의 재정안정에 기여키 위해 회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이 불교방송 후원회원으로 가입키로 했다.

또 종단협 회장 월주스님등 회장단이 후원회 당연직 임원을 맡고 각종단 대표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불교방송 후원회는 각종단 대표들이 참가하는 확대기구로 재편,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및 각 사찰 주지스님과 신행단체장, 불자기업인등 40여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지방국이 있는 지역(부산 대구 청주 광주)에도 지회를 결성해 후원회를 전국화 할 방침이다.

6대 종단 성지순례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스님)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6대 종단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5월31일 1차로 천도교 성지인 울산 바위골과 경주 용담정을 다녀왔다.

밝은길 아봐타센터

지금 당신의 변화를 위해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삶에 원치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봐타코스에서 과감히 지우시고 늘 원만한 삶의 향상과 발전, 밝은 지혜의 길을 획득하십시오.

코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새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유식과 함께 깨어남을 경험하십시오.

수련기간 7~9일간 (수시 접수)/비용 160만원(상담 무료)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합장

전 화: (02)396-2736 · 휴대폰: 016-228-2358

원·혜·스·님·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올한올 엮어져 있다.

'저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본문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죽비 깎는 아침
미국으로 인도로 파리로 멀고 먼 길을 흐르며 얻은 운수납자 지묵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지묵 지음/7,000원

둥지마을 이야기
대부도에서 외로운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둥지마을 이빠 스님 법현의 수상집.
법현 지음/5,000원

백팔번뇌
8만4천의 법문 중 어려운 인생문제에 적합한 말씀의 구절을 골라 내어 모았다.
현재훈 역/7,000원

불교입문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설, 정리한 입문서로 해박한 불교지식을 접할 수 있다.
홍사성 역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덕진스님 포교 · 수행담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묘약' '똥싸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곗돈을 떼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밥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